

# 부당한 '역풍' 대응책 시급

## 신정아 사건 후유증 ... 각종 사업·행사 취소 잇달아

신정아 씨의 학위위조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등 역차별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오 총장 취임이후 신설된 경영관리실의 CS경영팀(팀장=박서진)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 혁신부문에 응모했다. 올해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이 상을 수상할 하게 되면 대학경영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학 CS(고객만족)경영 사례를 만들어 CS선도 대학으로 대내·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를 위해 CS경영팀은 신설된 당시부터 대학 최초로 고객만족경영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인력 및 시간, 예산을 투자해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현지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이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능률협회측은 "신정아 씨의 학위위조사건으로 인해 대학의 고객인 학생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동국대가 수상하게 될 경우 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수상확정을 취소했다. 이에 박서진 팀장은 "모든 심사기준은 통과했으나 이러한 문제로 수상이 취소돼 억울한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

했다. 지난 달 18,19일에 가졌던 취업박람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기획 당시 NHN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NHN측은 "현재 네이버가 동국대 관련 사건을 중요시사로 보도하고 있어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취업박람회가 열리기 이틀 전 불참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지난 '강정구 교수사건'과 같이 신입사원 선발 면접 시 신정아 사건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는 이번엔 진행되는 '면접스킬마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팀(팀장=이창학)의 한 직원은 "우리학교에 연구의뢰를 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당교수 학력 등에 대해 두 세차례씩 문의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역풍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2005년 이후 받았던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특혜지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도 학교의 이미지 실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구조개혁선도대학 △기타 국가R&D사업 등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뤄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근거도 없는 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해 검찰 압

수수색을 받음으로써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앞으로도 교육부를 비롯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선정에 우리학교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 2월에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준비가 한창인 법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로스쿨연구위원회 박병식(법학) 교수는 "이번 로스쿨인가는 '몇점을 넘으면 인가를 받는다'는 기준이 없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BK21, 인문한국사업 등에서 잇달아 탈락하면서 이 사건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윤경탁(경영정보2) 군은 "학교가 이러한 불이익에 앞으로 이렇게 지지 부진하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 이상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당국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참회합니다 ... 지난 4일부터 중앙총회의원 정범섭님이 팔정도 불상 앞에서 신정아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참회의 108배를 울리고 있다. 정범섭님은 "승단은 일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참회부터 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동국미디어센터장에 윤재웅 교수



동국미디어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신임 미디어센터장으로 윤재웅(국어교육)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윤재웅 센터장은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본교 미디어센터장에 부임했다. 동국미디어 센터는 대학미디어팀, 출판사입팀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 이재용 아나운서, 학습법 워크숍 11일

### '논리적으로 말하기' 주제로 다학관에서 진행

이재용(수교 88졸) MBC아나운서가 오는 11일 오후 3시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라는 주제로 학습법 워크숍 강의를 진행한다. 7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학습법 워크숍은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중권·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지난 달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 이과대, 연구 프로젝트 발표대회 개최

### 17일까지 기획서 제출 ... 심사통과시 연구비 지원

이과대학(학장=김해중·통계학)에서 연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시행하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술능력 함양과 창조적인 대학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과대 재학생이라면 개인별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할 교수 선정 후 e-mail(kgw@dongguk.edu)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논문기획서는 오는 17일까

지 작성해야 하며, 이과대 행정지원실 방문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기획서 양식은 http://science.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논문기획서 심사 통과자는 연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소정의 연구 수행비를 받게 된다. 심사 및 시상금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1팀) 70만원 △장려상(1팀) 50만원과 같이 이뤄지며 다음 달 26일 이과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유럽지역 대학과 협약체결 진행

### 영국·체코·노르웨이 등 내년부터 교류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오영교 총장의 유럽지역 대학 방문을 통해 유럽지역 대학과의 협약이 체결됐다. 오 총장은 체코의 Technical University of Ostrava에서 15일 General Agreement와 학생교류, RFID관련 산학협력에 상공회의소와 함께 체결했다.

오영교 총장은 일정상 일찍 귀국해 국제화추진단 김일중(국제통상학)단장이 △런던대학(SOAS) △런던대학(Goldsmith College) △Bath

Spa University College △Oxford Center for Buddhist Studies △Oxford University와 협약을 맺었다.

같은 달 진행된 유럽 국제교육 박람회(EAIE)에서는 노르웨이의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대학과 협약 체결이 성사돼 내년도 1학기부터 학생 교류를 시작한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인도공과대(IITB)와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22일부터 중간 강의평가 시행

### 불이행시 학교 홈페이지 및 E-class 로그인 불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학기 중간 강의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매년 학기별로 2회만 시행하던 강의 평가가 이번 학기부터 학기별 중간·기말 2회씩 총 4회로 확대된 것이다.

시행 대상 교과목은 2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에 해당하며, 강의 평가 입력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마이페이지에 로그인 후 할 수 있다. 응답 학생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강의평가 설

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및 E-Class 로그인을 할 수 없다.

실시 횟수를 늘린 이유는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수에게 학기 중 강의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무팀 이용택 계장은 "학기 중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의 질과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므로 학생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양성평등 영화제 개최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는 오는 10일 '양성평등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는 문화를 통해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상영되는 영화는 △오후 1시=미누도 잇신의 '메종드히미코' △오후 3시=조나단카프란의 '피고인' △오후 5시=앤디 픽만의 '쉬즈터 데이'이다.

장소는 중앙도서관A/V실이며 접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되며, 5명의 학생은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김지하 초청 강연회

오는 15일 김지하 시인의 특별 초청 강연회가 오후 2시 정보문화관 P401에서 열린다. 강연 주제는 '반지속의 무궁'으로 이는 지난 5일 우리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석좌교수로 취임된 것을 기념해 열리는 것이다.

## 본사사령

◇면 기자  
▲선담은(정외2)  
- 이상 10월 8일자

## 과학관 실험실 화재

### 화재원인 불명확 ... 피해액 약 7천5백만원 이달 중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지난 달 30일 우리학교 과학관 지하 1층 물리학과 양자기능반도체 소속 MBE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오후 6시 20분경 발생하여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화재 감지기 작동을 확인한 후 1차 진압을 했고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화재가 최종 진압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방재청 및 중부소방서, 경찰서에서 현장을 감시한 후 분석 중에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은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과열 또는 실험기 및 전기 콘센트의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규모는 소방서 추산금액으로 7천5백만원이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장치의 손상 정도에 따라 재활용여부가 결정돼, 추후 실험기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피해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는 고가기자재보험과 시설물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물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현장은 오늘(8일)부터 전부



철거되고 원상복구가 실시된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총괄지원팀 진차범 팀원은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이달 중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진수(회계학) 경영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중이었다. 다음 달 중에 실험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gid1126@dongguk.edu

## 학생경력개발원, 면접프로그램 진행

### 면접실습·이미지 메이킹·리허설 프로그램 개설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가 면접 때를 리허설을 개설한다. 이는 여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취업대비 면접실습, 면접 이미지 메이킹, 면접 리허설로 구성돼 있다. 취업대비 면접실습은 오는 10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명진관 A104호에서 4학년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면접 시 등장, 인사, 자기소개까지의 실습이 이뤄진다.

면접 이미지 메이킹은 오는 1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명진관 A103호에서 전 학년 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실습을 한다.

오는 14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면접 리허설은 3·4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실습과 악

식 모의면접을 한다. 접수는 지난 2일부터 본관 2층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영상을 통한 자가 면접 진단', '나에게 어울리는 색 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한편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4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100명을 선착순 접수받아 접수 순서로 51명을 선발했다.

교육내용은 면접 특강, 유형별 면접실습, 인사담당 실전 모의면접 등이다.

## 기획

# 압수수색, 왜곡보도 상치는 깊어져가는데.

관련지면 4면 특집면  
- 국고지원사업 특혜지원 아니다  
- '특혜 의혹'에 대한 학내반응

5면 특집면  
- '신정아사건'에 나타난 보수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 불교계·대학 '공동대응' 노력 절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전학일시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원서제출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인문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 숨은 동국 찾기

### 동국인(人)심(心)

동악을 떠도는 버려진 새끼 고양이. 본관 옆 로즈버드 앞에서, 따뜻한 마음의 동국인이 준 사료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논란

## 관련없는 부서까지 수색 ... 학교측 대응 필요

신정아씨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실시한 본관 압수수색이 학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등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이사장실과 총장실의 압수수색에 이어 28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관 40명을 보내 △법인사무처 △경영관리실 △전략기획본부 △학사지원본부 △운영지원본부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류와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학교가 신정아씨 학위위조 사건과 관련해 특별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불확실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이미 학교측의 충분한 자료제시와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까지 마구잡이로 수색하고 광범위하게 관련서류 및 컴퓨터 등을 압수해가 학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영관리실 CS경영팀의 경우 올해 4월 신설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넘도록 수색을 받았으며,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팀 또한 전략예산팀과 같은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아 한동안 업무가 중단됐다. 이외에도 산학협력단 R&D사업팀의 경우 검찰이 전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지난 4일까지 돌려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아

업무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수색과정에 있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인 △혁신관리팀 △CS경영팀 △경영평가팀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 △산학협력팀 등 약 6팀에 이르는 부서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져 학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등 대학자율권 침해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부서들의 서류까지도 씩씩이 식으로 압수함으로써 사실관계 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끼워 맞추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무리한 압수수색은 공권력의 수사권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학원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혜경 기자  
zenobia@dongguk.edu



수행의 밤 ... 지난 6일 동국기숙과 지역 주민들은 정각원 법당에서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는 다양한 신행활동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행활동 생활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는 앞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정기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최미혜 기자 lmsionaral@dongguk.edu

### 현전무대

여기는 어디?

○...남학생A :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다.  
남학생B :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곳이 가장 눈에 띄지요.  
남학생C : 우리학교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학생A :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스럽지만 색다른 경험이다.  
여학생B : 이런 곳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 하려니 불편하다.  
여학생C : 출입문만한 유리 창문, 시트지라도 붙여주세요.

스무고개. 여기는 어디 일까요?  
정답. 학림관 1층 화장실.

청소는 누구 몫?

○...요즘 만해광장에는 옥의 티가 날려다니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함께 뛰면서 하나되자는 의미에서 열린 단과대 체육대회가 끝난 뒤 버려진 쓰레기가 밤마다 만해광장을 방황한다는 것 함께 뛰면서 하나되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함께 치우면서 하나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 런지. 이에 꼬마 동국이 왈, "우리도 우리 반 청소는 직접해요"

블룸을 낚시라

○...너의 필(feel)과 소울(soul). 꼭 함께 느껴 줘야만 해? 원대걸스를 아끼는 도서관 내 옆자리 그 녀석. 네가 이어폰 블룸을 낚일 때면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짝이 아질.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렘피, 렘피' 블룸 낚시 달라 말해 말해줘요. 여기는 도서관이거든.

정글관

○...문화관 아미존이 가까워지면 걱정도 많이 집니다. 모뎀수업이 끝난 뒤라 책상 숲이 만들어졌거든요. 삼림육이 좋지만 이견 아니잖아요. 다음에 얼굴 찌푸릴 사람이 당신에 필지도 모르는데 모뎀 수업 끝난 뒤 뒤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진 않음... 강의실에 그 많은 의자라도 좀 옮겨야지, 원...

# “이사회 쇄신”, “이사 사퇴 요구” 등 수습책 표명 재단·종단·교수회 긴장감 돌아

신정아 가져학위 파동과 관련해 최근 교수회와 조계종 측은 '재단 이사회 전원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26개 교구본사를 대표하는 주지사님들은 회의를 통해 이번사건과 관련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지회의는 △동국대법인 이사회 전 이사사퇴 △사건규명 관련자 징계추진 △선정적 보도로 불교의 위상을 손상시켜온 행위 중지 △정치적 의도와 종교적 편향으로 불교계를 폄하하는 행위 즉각 중지 등을 결의문을 통해 요구했다. 또한 '불교의 위상을 손상시킨 조선일보구독 거부'를 범교적으로 전개하며 불교계를 폄하하는 문화방송(MBC)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수회(회장=이종욱·경영정보)의 경우 지난 1일 '동국대 자정운동을 위한 교수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법인 이사회와 대학당국은 '신정아 문제'를 조래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는 지난 2일 전 교원의 자격 재검증 및 신 씨 수업에 대한 선택적 학점포기 등 추가학생 수감 보장 요구가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점과,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소환제 제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학내의 반응에 대해 학교 법인 재단이사회(이사장=영배

스님)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신정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를 수습한 후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이사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실제적 진실을 외면하고 무차별적으로 사건을 확대 재생산한 일부인론의 책임을 무과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일부인론의 보도행태를 하나하나 추적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과, 교묘하게 왜곡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 기자  
zenobia@dongguk.edu

## 커리어우먼아카데미 5일부터 시행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다함군 세미나실에서 커리어우먼아카데미를 시행한다. 이는 여학생들의 진로관리 능력 및 취업력을 제고를 위한 것이다.

다음 달 진행되는 커리어우먼아카데미 12기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자기진단검사, 영문이력서 작성법, 영어면접 Role Play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수료시 수료증 발급과 겨울방학 MOS과정 우선권이 부여된다.

## '체코 IT 졸업생의 경쟁력 확보 방안' 프라하 대학 Ota Novotny 교수 초청 강연

이 발표는 체코 IT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무와 이론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한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는 공대, 정산대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IT분야에 관심 있는 동국인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보통신연구소와 컴퓨터공학과 측은 "체코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지만 우리 학교 학생과 교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결과 발표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 동국로에서

## 대화가 필요해

교지대납부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교지편집위원회(東國) [편집장=김희영·국제통상3]이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1학기 2학기, 학생회비와 함께 납부하던 교지대가 등록금 고지서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지편집위원회 측은 학교가 사전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교지대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교지가 각 단과대 건물에 배포대 없이 건물 곳곳에 방치되어 교지배부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 2005년 교지편집위원회에 교지대를 낸 학생에게 교지를 우편 발송하도록 요청했다. 이어서 올해 언론으로서 교지의 기능 약화와 교지가 배포방식의 개선 방안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대를 제외시켰다.

학생 서비스팀 김해택 팀원은 "이전부터 각 단과대 건물별로 교지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재무회계팀과 학생 서비스팀에 민원이 발생했다"며 "교지대를 낸 학생들에게 교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같은 민원에

대한 교지편집위원회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학기부터 교지대를 등록금 고지서 신청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지편집위원회 측은 한 정된 예산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지를 우편 발송할 경우 추가 예산 지원없이 이 비용을 부담하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김희영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은 "우편 발송의 대안으로 교지대를 낸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계획으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지편집위원회는 1986년 인시기구에서 독자적인 언론기구로 바뀌면서 편집위원회, 총학생회, 학교 당국의 참여로 이루어진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학생회비와는 별도로 교지대를 수납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운영되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납부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교지편집위원회의 논의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 통지로 교지대를 제외하는 것은 학내자치언론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한 학기 2500원에 불과한 교지대를 강제로 제외시켜 버린 것

은 성급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학교는 학생을 배려하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교지편집위원회의 자리에서 교지대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교지편집위원회 역시 자치 언론으로써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자기 반성과 함께 학교 당국에 대한 투쟁보다는 대화로써 문제를 풀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대로 고지서에서 교지대를 계속 제외시킨다면 이십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지편집위원회의 교지 발간이 중단될 위협에 처한다.

학교와 교지편집위원회 서로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 상담 시간표 / 2007년 2학기(9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비고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09:00 ~ 09:30											
09:30 ~ 10:00											
10:00 ~ 10:30		홍진영									
10:30 ~ 11:00		홍진영		홍진영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00 ~ 11:30		홍진영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30 ~ 12:00		홍진영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2:00 ~ 12:30				박성순(당일)							
12:30 ~ 13:00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성순(당일)			
13:00 ~ 13:30		홍진영		홍진영		원치승		박성순(당일)		박술잎	
13:30 ~ 14:00				홍진영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00 ~ 14:30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30 ~ 15:00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00 ~ 15:30				원치승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30 ~ 16:0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00 ~ 16:3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30 ~ 17:00				원치승		박성순(대학원)		원치승		박성순(대학원)	박술잎
17:00 ~ 17:30						박성순(대학원)				박성순(대학원)	
17:30 ~ 18:00						박성순(대학원)				박성순(대학원)	

○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 박성순 전일연구원 / 대학원생 상담 / 2260-3380 jayion@naver.com  
 ▷ 홍진영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heukchun@naver.com  
 ▷ 박술잎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pooh322e@naver.com  
 ▷ 원치승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csweon@yahoo.co.kr

## 글쓰기센터 상담프로그램 안내 Counsel Program

프로그램	일반상담 - 학부생 상담 - 대학원생 상담(석사과정)	당일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상담내용	자세한 질의 및 상담	간단한 조언	간단한 이메일 코멘트
신청방법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일 방문 신청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반상담 프로그램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이 있습니다.
- ▶ 학부생 상담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글을 쓴 이후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글쓰기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수업과 관련된 모든 글(발표문, 서평, 기말 보고서 등)이 상담의 대상이 되며, 상담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담당합니다. 보고서의 계획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학원생 상담 : 글쓰기센터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표문이나 기말보고서, 학위논문의 개요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일연구원이 담당하며, 주로 글을 계획하고 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일방문상담 프로그램(주 2일 8회 4시간 한정)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글쓰기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성 단계에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 상담을 원할 때는, 당일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한 후, 글쓰기센터로 찾아오면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상담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받고 싶을 때는 이메일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글에 대한 자세한 질의나 조언은 불가능하며,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의를 원할 경우, 이메일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글쓰기센터 홈페이지가 준비 중이어서, 상담프로그램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예약 받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원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 게시된 상담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기(2007년 2학기) 보고서

### 집중상담프로그램 선정자 공고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 마련한 제1기(2007년 2학기)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과정입니다.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과의 일대일 상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한편, 짜임새 있는 보고서 작성법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2008년 1학기에 있을 제2기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상세히 알려드리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으나 반드시 참석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명단과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자 명단  
유현아(교육학과)  
장형권(사회학과)  
이정규(사회과학부)  
한정윤(교육학과)  
김현이(불교학전공) 이상 5명

■ 오리엔테이션 일정  
일 시 : 2007년 10월 2일(화) 17:00  
장 소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제1상담실(동국관(M동) 4층)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능동적 강의 참여 이끌어 내는 발표수업의 힘

## 면접의 '리허설' · 자기표현능력 개발 기회



▲고전세미나 수업시간, 발표내용에 대해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모습

고전세미나 수업의 발표시간. "어...어..."

교수님께 지명당한 김동국 군은 강의실 교탁 앞에 서서 얼어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발표해 본 경험도 없었던 김동국 군은, 사투리를 쓰면 사람들이 웃지나 않을까 걱정도 앞섰다. 결국 김동국 군은 아는 내용이었음에도 황설수설하다가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이른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를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표 능력은 면접, 취업, 나아가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서야 현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발표하게 될 때를 대비한 예행연습이기 때문이다.

이준서(경영학) 교수는 발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수업은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집에서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찾고 실천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수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1학년 학생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정등용(사과대1)군은 "부산출신이라서 사투리를 쓰는데 발표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투리를 사람들은 재밌어 한다. 첫 발표 땀 갑작스러워서 창피하기도 하고 실수도 몇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발표를 하다 보니 오히려 사투리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 이제 준비해간 만큼 보람이 되는 발표수업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약점이 될 수 있었던 부

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례다. 이렇게 모두가 한 두 번은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발표 수업. 학생들은 발표수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동원(경영3) 군은 발표수업의 효과에 대해 "대학에서는 발표수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표, 토론수업은 수동적인 수업을 능동적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면접 등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그는 "발표수업은 자신의 주장을 뚜렷이 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21세기는 '자기표현의 시대'라고 한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표현해 내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발표수업은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표자뿐만 아니라 교수, 듣는 사람까지도 발표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발표수업은 꾸준한 연습이 뒤따라야 한다.

# KBS김은성 아나운서에게 듣는 대학생 발표 요령

## “공감대 형성과 자연스러움이 기본”

### 말 · 표정 통한 표현력, 논리적 내용구성 위해 꾸준한 연습 필요

- 생활 속에서 발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 먼저 생활 속에서 표현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가는 풍경, 하루 일과 등을 직접 말하며 연습 해본다.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말 할 내용을 직접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만하고 말을 하다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쉽다. 직접 적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말 하는 연습이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발전이 있다. 독수리가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기까지는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지만 적정 고도에 오르면 바람을 타고 여유롭게 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말하는 것이 몸에 체득이 되면 점차 작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말을 하거나 발표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자연스럽게 발표를 이끌어 가는 방법은...  
=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중의 연령, 관심사, 발표 주제에 대한 이해정도 등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경청할 준비를 한다.

청중을 파악했다면 '자기노출'로 말을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은 발표자가 자신의 성격, 외모, 취미, 선호도, 종교, 목표 등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갈 때 편안함을 느끼며 이야기에 몰입한다. 때문에 주의를 먼저 돌려보고 상황판단을 한 뒤 자신을 먼저 노출시켜 청중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자연스러운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발표할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음성 부분으로 말의 어미를 울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소리를 내지르지 않고 안으로 삭이는 경우가 있다. 발표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내용면에서는 기승전결이 부족해 논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표를 할 때는 눈으로 보여 지는 부분도 중요한데 외모와 제스처가 여기에 속한다.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발표의 준비성이 떨어져 보이고 허공을 쳐다보거나 머리 긁적이기, 뒷집지기 등의 행동은 발표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교수들이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자세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도 함께 갖춰져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발표 불안증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발표 불안증은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때문에 불안증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헤쳐 나올 수밖에 없다.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이 준비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긴장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발표 중간 중간 발표자가 잠시 말을 쉬라고 해도 청중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긴장이 되면 말이 빨라지게 되고 호흡이 가빠진다. 떨릴수록 문장과 문장사이를 최대한 쉬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는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간혹 스튜디오가 바뀌는 경우에는 긴장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가급적 일찍 현장에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도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원고만 쳐다보기보다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미리 발표하는 곳에 서보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 본인이 가진 특징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발표 내용과 발표자를 연관시켜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발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 외모적인 특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노래, 명언, 사례 등을 발표 앞, 뒤에 적절히 배치해 준다. 발표내용에 적합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발표에 대한 집중도도 자연스레 높아져 발표 내용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다.

또 다른 방법은 풍부한 표정으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신체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얼굴이다. 예를 들어 같은 미소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쁨, 유머, 비웃음, 우울성, 순종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발표자의 표정으로도 청중들은 발표내용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표정은 발표 내용을 구체화시켜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 평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발표를 할 때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 특별히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만 발음과 소리에 있어서 부정확한 부분은 연습을 통해 고쳐야 한다. 요즘은 오히려 사투리를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확



하게 발표내용을 전달 할 수 있다면 사투리를 사용하더라도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말투를 고치고 싶다면 단순히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양과 말의 리듬감까지 고쳐야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 먼저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리듬감을 키워야 한다. 이때는 말을 할 때 리듬감이 좋은 친구들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찾아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보면 자연스레 리듬감을 탈 수 있다.

또한 녹음기를 활용해 자신의 말투를 직접 들어보며 어색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내 고치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 발표 불안증 극복 체조 Tip

1. 심호흡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2. 혀와 턱을 풀어준다.
3. 바른자세를 유지한다.
4. 손과 손목의 힘을 빼고 풀어준다.
5. 어깨와 등을 똑바로 하고 앉은 다음 배를 당긴다.
6. 머리와 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좌우, 아래위로 돌린다.

#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계 명문 동국, 이십만 동문의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 이십만 동문의 뜨거운 후원은 World wide Dongguk 구현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배사랑 등록금 후원 캠페인’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는 모교사랑의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기금납부방법

#### ■ 무통장 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 \* 신한은행 : 140-000-649193 \* SC제일은행 : 107-10-119210
- \* 외환은행 : 065-13-19061-0 \* 국민은행 : 068-01-0373-353
- \*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 농협 : 360-17-003822
- \* 우체국 : 012328-01-001567

#### ■ 자동이체(CMS)납부

신청시 필요한 사항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약정액, 월 납입액

#### ■ 인터넷 약정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http://www.dongguk.edu

#### ■ 지로 납부

사업개발본부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나 은행비치용 지로용지를 이용(지로번호 : 7606368)

#### ■ 자동응답(ARS) 납부 : 060-7000-119

기부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1통화만 유효하며 초과통화는 기부금액에서 제외)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사업개발본부  
(02-2260-3300, 3794~5)

국고지원사업 특혜지원 아니다

# 단순비교·짜맞추기식 의혹제기는 ‘억지’

## 검찰·언론,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따른 지원을 특혜로 몰아부쳐

신정아씨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끝도 없는 선정비도로 얼룩지고 있다. 급기야는 우리 대학이 신정아씨에 대한 채용을 대가로 교육부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카더라’ 식의 황당한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신씨 교수 임용이전에 확정된 예산지원을 위압을 통한 특혜라고 끼워 맞추는가 하면, 정원 감축과 같이 대학의 수입감소로 연결되는 구조개혁은 철저히 무시한 채 특혜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마저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어 학교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주도로 특혜시비 점화

지난 1일자 조선일보에는 ‘신정아 채용 뒤 동국대 예산지원 급증’이라는 제목의 신정아 씨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국고 지원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다. 신씨의 교수임용 위압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2005년 이후 우리학교가 받은 국고지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특혜의혹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라 다른 언론사들마저 다루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채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보도’로 변질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2005년 35억여원이었던 교육부 예산지원이 신씨가 채용된 2005년 9월이후 2006년 100억여원, 올해 61억여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은 2005년에 지방대학 혁신사업인 누리사업에 7억 7천9백만원, BK21사업에 3억 7천9백만원, 수도권 특성화사업 23억 5천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또, 2006년에는 누리사업에 7억 3천9백만원, BK21사업에 8억여원, 수도권 특성화사업에 25억 6천만원이 지원됐고 정원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비로 59억여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같이 단순한 양적 비교만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국고지원금이 특혜성이려면, 전체 사립대 대학 지원 정책과 어긋나거나 눈에 띄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육부 정책과 전체 예산편성, 타 대학과의 비교, 우리학교 내부 구조개혁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씨의 교수채용 이전인 2004년 8월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하

여 ‘대학구조개혁 기본방안’을 발표한다. 즉 대학의 백화점식 경영을 개선하여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원감축, 학과 통, 폐합 등의 구조개혁과 대학특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시 내세운 정책기조가 ‘선택과 집중’인만큼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예년보다 늘어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경우 기존의 ‘나눠 먹기식’ 지원금이 아닌 탓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지급받지 못한 해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지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대학 구조 개혁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들에 대해서 정원 감축과 교수충원 등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즉 실제 대학에 지원됐던 예산과 정원감축, 교수충원에 따른 대학의 예산지출을 비교해보면 실제 지원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정부지원예산

#### 2005년이전 이미 결정

일례로 우리학교의 경우 구조개혁 사업을 위해 518명의 학생정원을 감축했다. 우리학교의 교육재정이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정원감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는 한 해 평균 150억원 가까이 된다. 또 같은기간 116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함으로써 생긴 지출규모 역시 한해 평균 70억원에 이르는 등 학교가 한해 220억원에 가까운 예산부담 효과를 감수하면서 추진한 구조개혁이었던 것이다.

또, 각각의 사업 선정 시기와 지급 금액, 우리 학교의 구조 개혁 내용을 타 대학과 비교해 보면 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학교가 CT(문화산업) 분야 특성화 계획을 제출해 3년간 75억여원을 받은 특성화사업은 교육부가 2005년부터 3년간 30개대학 42개 특성화 사업에 연간 6백억원씩 총 1천8백억원을 지원한 국가정책사업이었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은 수도권대학 가운데 비교우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 요건이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학도 상당수 있으며, 신청대학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해 교육부 발표에서도 2005학년도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표참조)에 우

2005 대학특성화사업 지원액		대학 구조개혁 선도대학 국고지원금 현황	
		정원감축인원	지원금액
경희대	33억 2천만원	성균관대	407명
한양대	31억 8천만원	한양대	564명
성균관대	30억 5천만원	경희대	620명
중앙대	29억 8천만원	서울대	731명
서울대	29억 3천만원	인하대	399명
이화여대	28억원	중앙대	501명
연세대	27억 4천만원	고려대	518명
고려대	22억 3천만원	한국외대	21억 9천만원
한국외대	21억 9천만원	동국대	19억원
동국대	19억원	홍익대	18억 6천만원
홍익대	18억 6천만원	연세대	18억 2천만원
연세대	18억 2천만원		

서울캠퍼스 교원확보를 현황						
		2004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교육부	연구중심	-	56.0%	57.5%	60.0%	62.5%
	교육중심	-	54.5%	56.0%	57.5%	59.0%
서울캠퍼스	교원확보율	44.4%	50.5%	56.1%	60.2%	-
	전임교원수	346명	390명	430명	462명	-

학부 입학정원 감축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 계
서울캠퍼스	-	66명	48명	110명	223명
경주캠퍼스	-	-	150명	146명	296명
합 계	-	66명	198명	256명	518명

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이 선정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신씨가 채용된 9월보다 앞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같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히 예산지원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우리대학이 변양급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용해 예산지원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 하고 있는 것이다.

### 정원감축, 교원 확보 노력대가

국고지원금 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는 2006년 신씨의 교수임용이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87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역시 이미 2004년 12월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과 수도권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2007년까지 5%, 2008년까지 10%의 입학정원감축을 준수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원감축과 더불어 전임교원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수입감소와 재정압박을 감수해야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수도권 8개 대학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2006년 우리 대학을 포함한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

3년 간 총 87억6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06년에는 59억 2백만원이, 2007년에는 19억6천7백만원이 배정됐다. 이것은 우리학교가 올해까지 60.2%의 전임교원을 확보<표참조>하고, 2008년까지 518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구조개혁계획<표참조>을 세워, 교육부에서 이를 평가한 결과이며 신 씨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 학교만이 아닌 타 대학이 함께 선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감축인원이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대학과 비교해 적은 금

### ‘특혜의혹’에 대한 학내반응

## 국고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날아간 각고의 노력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두번째 태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국고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진들은 그동안 들인 노력은 강그리 무시되었다며 황당해 하면서 허탈하다는 표정이다. 특히 2004년부터 진행된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 신정아씨 임용으로 인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성 보도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수도권대학 특성화후수대학 지원 사업’ 실무를 맡았던 현 경영관리실 유광호 과장은 “200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 한 후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성화 분야로 선정된 영상, 문화부분의 모든 학술자료, 세미나, 행사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팀을 구성해 한달 가까이 밤을 새며 합숙작업을 하다가피 했다”며 국고지원은 결코 특혜가 아닌 교수, 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당시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87억원이고 518명의 정원을 감축했을 때는 1년에 150억 원의 재정 손실이 있다. 단순히 한가지만을 놓고 보아도 국고지원에 비해 학교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크다”며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그는 또, “학교가 정원감축, 학제개편 등의 진통을 겪고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공표한 교육정책 방향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MBA승인, 기타 R&D 사업에서의 가산점 등 전체적인 발전모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언론은 우리학교의 각종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선정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검찰은 법인 사무처, 교무팀, 전략기획본부 등 관련 부서뿐 아니라 산학협력단, 총괄지원팀, CS경영팀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혜성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국고 지원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반응은 “언론이 국가의 교육정책 방침과 각종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단순한 수치비교로 의혹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언론과 검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액을 지원받았다는 결과는 ‘특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특히 우리학교보다 정원감축규모가 적었던 연세대나 한대, 성균관대 등은 우리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른대학과 비교할 때 특혜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외에 지원받은 국고지원 사업인 BK21이나 누리사업 역시 신 씨 채용 이전인 2004년 이전에 이미 선정된 것으로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3천억원이 투입된 1단계 BK21 이후, 2006년부터 7년 간 2조3백억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된 2단계 BK21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2개 신청 사업 중 단 2개만이 선정되는 등 신 씨 채용 이후에 국고지원사업 선정결과는 기대이하여서 “우리 학교가 받은 국고지원금을 신 씨와 연결 지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에서 기본

적인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씨 임용과 학교의 예산지원을 결부시킴으로써 학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들에게는 막대한 위기감마저 갖게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예산지원에 대해 우리학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주무부서인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졸졸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 차후의 교육예산지원시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학협력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특혜의혹의 여파로 인해 우리학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우려적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학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상민  
동국대학원 신문 편집위원  
영상대학원 영화학과 석사과정

##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 동양법의 상징



손 성 지음  
2007/4×6배판/261면/20,000원  
ISBN 978-7801-191-4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법체계가 변화·발전되었고, 그 흐름에 맞춰 다양한 법이론서들이 발간되어 왔었지만 막상 “法” 자체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연원연구는 전무했다.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손성 교수(법학과)의 ‘동양법의 상징’은 비단 법을 전공하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하는 독자들에게 법(法)의 어원과 다양한 상징성을 통해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法”字的 어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法”자의 최초 의미와 현대의 의미가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기존의 한학자나 법학자들의 고석(古釋)을 뛰어넘는 색다른 시각의 심층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法”자가 여성(女性)을 상징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 책의 중심사상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해석을 위해 신화, 전설, 역사는 물론이고 세시풍속과 일반민에게 금기시 되어왔던 천문까지 섭렵하여 기술하고 있다.

비교적 쉬운 터치의 문체로 법과 관련한 각각의 에피소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스토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였다. 현재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이 진행 중이다.

법철학과 동양철학의 상징성을 접목시킨 도서로서 법학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교양도서로 추천하고 싶다.

2

### 日本語 名文 讀解



강 석 원 지음  
2007/신국판/200면/10,000원  
ISBN 978-7801-193-8

‘日本語 名文 讀解’는 전공 과목 이수에 필요한 독해력 향상을 원하는 중급수준의 학습자나 일본어 실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독해 중심의 일본어 교재이다.

이 책은 비교적 쉽고, 즐겁게 일본어 독해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일본인 정서가 담긴 일본의 대표적 작가의 名文들을 엄선하여 독해력 향상과 일본문화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독해문을 통해 일본어의 문법과 문형, 어휘를 개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에 있어서는 일본 특유의 표현양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문장과 문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실용적인 일본어 표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문은 물론 회화에 있어서도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일본어 표현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은 학습자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다.

##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가. 일 시 : **10월29일(월) 오후3시-5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층) 특수자료실  
다. 진 행 : 사회과 남중교 교수  
라. 선정도서 :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 시모노 나카미, 부엔리브로 2007  
마. 정 원 : 12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미디어 비평 - '신정아 사건'에 나타난 보수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 북치는 '언론', 춤추는 '검찰', 멍드는 '대학'

## 사건의 본질 벗어난 각종 의혹 제기 ... 사사로운 이익 지양한 공익보도 필요

한국사회의 언론이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모르긴 해도, 국내의 주요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는 우선적으로 언론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에 그 바탕이 있다.

기든스는 신뢰에 대해서 "주어진 사건 및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나 체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여기서 확인은 추상적 원리들의 정확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든스에 따르면 언론의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결국 수용자가 언론보도에 대해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하며, 정확성에 대한 믿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함이 지상과제인 언론의 보도를 정작 이를 수용하는 공중들은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니, 이즈음 되면 과연 헤게모니의 위기라고 할만하다.

###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

이러한 언론 신뢰의 회복에 대해 연구를 해 온 바 있는 국내의 언론학은 자유주의와 언론의 신뢰를 위해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을 주장했다. 여기서 옳은(right)은 언론이 보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에 해당하며, 좋은(good) 언론은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공중체라는 집단적 이익에 근거한 배타성과 비도덕성 여부의 문제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언론은 보도과정의 절차상에 있어서 계약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한 배타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말만 복잡할 뿐, 내용이야 어쨌든 상식과 도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언론 보도 양태는 위와 같은 저널리즘의 원칙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무리 원칙과 원리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 "저널리즘의 원칙은 이러 이리하니 준수해야 합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궁색해질 정도이니, 모두가 한번 되짚어 볼만하다. 그것

은 다음 아닌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는 '신정아 사건'을 둘러싼 보도의 형태들이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학위 위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신정아의 일인칭 사기극에 서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갖게 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 사실확인 없는 보도경쟁

이 사건을 보도한 주요일간지들은 우선 검찰의 수사 착수 전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있다', '알려졌다', '보인다', '추정된다', '해석된다' 등의 추측성 서술어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속보성 경쟁에만 매달렸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촉각을 신정아·변양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이로 인한 변씨 개인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쪽으로 돌리는가 하면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며 마치 동국대가 비리의 온상인양 몰고 가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두 사람의 개인비리로 좁혀진 이상, 언론은 독자적인 취재망을 동원하여 권력형 비리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거나, 추적취재가 어려우면 수사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정아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보도의 '스크롤'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궁금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울바라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신정아 본인 및 신정아와 변양군의 관계에 대한 시시콜콜한 가십리들을 쫓아다녔다. 특히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에 대한 기사에는 이러한 보도양태의 정점을 보여 준다. 문화일보가 주목한 신정아 누드에 대한 내용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증언도 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는 신지가 "명품 스타일"이라는 등, '남자 친구가

사준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등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여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

이에 결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정아씨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의 9월 13일자 보도에 대해 "사과"조치를 내리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원회는 문화일보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행태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일이며, "언론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추이를 살피고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며 그것이 '좋은(good)언론'인 것이다.

그러나 신문의 헤드라인에 누드 사진의 내용을 올리거나 하면, 신정아에 대한 각종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를 단지 흥미거리를 위해 강행하는 신문기자들의 열로 우 저널리즘의 정형을 잃어가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사건보도의 정치적 이용

신정아 사건보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배경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음 아닌 현재 국내의 최대 쟁점인 대선이다. 모두가 지지하듯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여야당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여야 간의 싸움은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즉, 한나라당은 여론후보의 문제점이냐 여당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묻고 늘어질 것이고, 여당 역시 이명박 후보를 어떻게 흠집 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신정아 사건 역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이명박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역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활용한 예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몇 가지 비리가 밝혀지면서 여론에 대한 공격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여론을 '편지' 거는데 신정아 사건을 사용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가십기사와 추측기사가 역시 이를 특특히 한 몫 거든 셈이다.

신정아 사건의 최대피해자는 다름 아닌 동국대학교와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이면서 언론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인격적 상처를 입은 신정아씨와 변양군씨도 피해자 중 하나이다.

물론 신정아씨가 펼쳐낸 '학위 위조'라는 전례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또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학교 측의 무능한 행정처리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보도는 100년이 넘는 성상을 자랑하는 20만 동문의 자긍심과 1만5천 동국대 학생들의 명예를 짓밟았다. 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비록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하더라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피의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조롱했다.

흥미거리를 위해 앞 다투어 보도했던 누드사진과 이메일의 내용들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이와 같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또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됨이 틀림 없는 것이다.

신정아 사건을 우리사회의 고질적병폐의 연장으로써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독자들에게 꼭 가십거리의 내용들과 빚나간 문제의 핵심들만을 선사해야만 했을까?

언론은 누드사진과 스캔들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보다 학위위조 사건을 빚어내게 된 우리사회 내 학벌중시 풍토를 고발하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야기되는 양극화를 지속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옳은 것이며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 바른 알거리 전달해야

신문이 표방하는 '정론지', 방송이 표방하는 '공익성'이라는 구호의 무색함에 아쉬움을 표한다. 언론사들은 지금이라도 신정아 사건의 보도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피의사실공표와 사생활침해도 빚어지는 인권침해 없이 바른 알거리를 국민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이 특정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목표로 위해 기사의 분량과 논조를 설정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국내 언론이 맞이한 정체성과 헤게모니의 위기, 부디 그들은 스스로 이를 맞이하도록 재촉해 온 점이 없었나에 대해 신중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제 방 훈  
동국대학원신문사 편집장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 불교계와 대학구성원 '공동대응'노력 절실

### 내부 성찰과 대화 노력 필요

### 분열된 모습이 사태악화 초래



▲1989년 9월 6일 동대신문에 실린 공동대책위원회 기사.

신정아씨 학위위조사건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추측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학원탐압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장실과 법인, 그리고 경영관리실 등 10여개 대학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수색의 목적과 큰 관련 없는 부서의 자료까지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학교가 수사를 의뢰한 학위위조사건에 대해 검찰이 권력층의 비호아래 학교가 정부로부터 특혜성 예산지원을 받았다는 예단에 근거한 과잉수사라는 점에서 학교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미 1989년도에 부정입학사건으로 총장과 이사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학원탐압 사태를 경험한바 있다. 당시 검찰은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구속수사를 강행함으로써 학내외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총장과 이사장이 구속되자 학생회와 직원노조, 동문회, 조교협의회 불교도 연합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 개최 등으로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학교가 맞고 있는 사태의 중대함에 비해 학내구성원들의 움직임이 너무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범 불교계에 대한 왜곡보도와 수사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종단과 재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분열양상마저 보임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일조하고 있다는 냉소 섞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동문들은 종단과 학교, 그리고 학내구성원들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먼저 사태를 수습한 후 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또 한번 외부에 가십거리를 던져주고 이미지 실추를 자초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과 학교, 학교와 교수회 등 각 구성원들은 서로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한 대자보 공방이 아니라, 학교가 맞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김지하 시인 특별 기념 강연회

김지하 시인이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석좌교수로 취임된 것을 기념하여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개최 합니다.

1. 일 시 : 2007년 10월 15일 오후 2시
3. 장 소 : 정보문화1관 P 401
4. 주 제 : 반지 속의 무궁
5. 주 관 : 동국대학교 부설 생태환경연구소

중 앙 도 서 관

## 제16회 경제인의 밤

- 일 시 : 2007년 11월 10일
- 별이 빛나는 토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세종호텔 세종홀

## 제39대 경제학과 학생회

## CISSP 자격시험 준비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  
00명 (선착순)
- 교육일정 (주말반)

과 정 명	교 육 기 간	교 육 시 간	비 고
제2기 CISSP 특별과정	2007. 10. 20(토) ~ 11. 11(일) (토·일요일 / 8일간)	09:30부터 (1일 4~6시간)	세부사항은 문의바람

- 수강료

수 강 료	대 상	교 육 시 간
650,000원	CISSP 자격시험 준비생 직장인, 대학(원)생 등	• 한국 CISSP협회 회원 5만원 할인 • 회원가입 무료(http://www.ciissporea.or.kr) • 본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10만원 할인

-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aj.dongguk.edu)에서 신청  
방문 및 FAX 접수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Tel : 02-2260-3733, FAX : 02-2260-3736)
- 수강료 납부  
무통장 납부 : 신한은행 140-007-734590, 예금주 : 국제정보대학원  
현금 및 카드 납부 : 직접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방문 납부

## 국 제 정 보 대 학 원

##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학과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5. 전형일정

구 분	교 육 시 간
원서접수	2007. 10. 15(월) ~ 10. 24(수)
전형일	2007. 11. 3(토) 10:00
합격자 발표	2007. 11. 14(수)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모집요강 참조

## 동 국 대 학 교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TEL (02)2260-8861~4 / FAX (02)2260-3696  
경주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TEL (054)770-2031~4 / FAX (054)770-2006

# 달하나 천강에

## 언론이 걸어야 할 길 대학이 가야 할 길



강재원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의 영향 즉 효과를 다룬 이론들 중 접화 이론(priming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미디어 또는 언론은 때로 어떤 특정한 문제에 주목하고 때로 다른 어떤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언론이 특정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쟁점의 중심에 있는 대상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평가를 바꾸어 놓는 과정이 바로 '접화'다.

이러한 접화의 효과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특정 하나의 문제에 대한 평가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해당 문제를 다룬 뉴스를 본 응답자들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은 뉴스를 본 응답자들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즉 해당 문제에 대한 평가가 특정 대상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어, 그 전반적인 평가가 더욱 나빠지거나 혹은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해당 문제가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조

또는 부각되는 경우, 그 접화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신정아 사건이 발생한 지 여러 달이 흘러가고 있다. 그 동안, 언론은 신정아 사건의 본질을 개인의 사기 행위를 넘어서 정치권과의 연계 및 의압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학교 특정 인사들과의 관련설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언론은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여러 가지 소문과 의혹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한 대학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 중에서 인사 및 재정적 비리와 같은 도덕성 문제는 그 대학의 전반적인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여전히 '의혹' 또는 '설'에 근거해서 우리대학의 도덕성 문제를 부풀리며,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던 동국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의혹 부풀리기는 언론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 아니다.

더욱이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보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일부 미디어들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선정적인 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언론의 금

도를 넘어선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객관성'과 '정보의 질'을 따진다. 객관 보도는 사실을 근거로 한 공정한 보도를 의미한다. 정보의 질은 뉴스가 담고 있는 정당한 가치를 의미한다. 지금의 언론 특히 신정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미달한다. 사실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고 저질스러운 선정적인 기사들로 넘쳐나니, 지금의 언론을 평가하자면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은 의혹을 부풀리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이 일반 대중에게 그 영향력 즉 접화 효과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진실'의 힘이다.

우리대학이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그 점들을 고쳐가려는 진실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한 조직만이 과거를 반성한다. 즉 반성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 조직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한 조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는 영원히 좋을 수 없다.

### '만해마을' 탐방기

## 만해의 자취에서 느낀 생의 의지



문득 작년 이맘때쯤 '가을로'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까닭은 영화의 모티브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취'를 찾아 나선다는데 있어서였다. 가슴에 남은 그 누군가의 자취를 더듬어 본다. 건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내가 이번 문화기행에 동참한 것이 위와 같은 이유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난히 문학을 좋아하는 나로서 만해라는 인물에 대해 항상 궁금해 오던 차, 중앙도서관에서 마련한 '민족의 큰 북 만해사상을 찾아 떠나는 문학기행'에 몸을 싣게 되었다. 날씨가 흐리더니 급기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우리 일행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백담사 만해마을'에 도착했다. 우선 잠을 청한 후, 다음날 우리는 백담사를 찾았다. 백담사는 만해가 1905년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그리고 만해는 이 곳에서 '조선불교유신론'과 '십현담주해'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 유신과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백담사는 만해가 일제의 민족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하였던

독립운동의 유적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종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만해 기념관을 살펴보았다. 선생님의 설명과 각종 기록들을 보면서 만해가 불교개혁과 민족독립을 위해 투사적 면모를 많이 갖추었다는 것,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자 중국으로 가서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하고 세계 일주의 뜻을 품고는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방랑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만 알고 있던 만해가 실상은 1935년 첫 장편소설 '흑풍(黑風)'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적도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백담사에서 내려와 푸푹한 산나물이 가득한 밥상으로 요기를 채운 후, 우리는 그 길로 다시 만해마을을 찾았다. 우리는 만해마을에서 만해문학박물관을 관람했는데, 이곳 역시 만해의 저서, 유품, 연대·주제별로 본 만해한용운의 일대기가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만해의 현적(顯跡)을 둘러본 후, 내게 아련히 남은 것은 그의 영광이나 업적이 아닌 그의 상처였다. 만해에게 억압과 폭력, 나아가 두려움과 고통함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

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 잃은 설움과 고통이었을까. 물론 그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의 작품 저편에 숨어있는 상처만 것이 비단 그런 주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만해 문화기행을 통해 그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만해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생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만 알고 있던 만해가 실상은 1935년 첫 장편소설 '흑풍(黑風)'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적도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백담사에서 내려와 푸푹한 산나물이 가득한 밥상으로 요기를 채운 후, 우리는 그 길로 다시 만해마을을 찾았다. 우리는 만해마을에서 만해문학박물관을 관람했는데, 이곳 역시 만해의 저서, 유품, 연대·주제별로 본 만해한용운의 일대기가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었다.

하나 마지막에는 한 세기를 앞서 살아가는 만해의 상처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는 의지와 희망,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곁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밖에 들어부었습디다"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게 그만 웃어도 된다 하려려 주는 듯 했다.

조은화(국교3)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들의 '눈' 대신할 신문책야

1448호 기획면이 기억에 남는다. 미디어 포탈 기관인 동국인의 신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현재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은 멀티미디어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현실에 발 맞추어 변화를 시도 중인 학교와 사람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동국인에 참여하는 기관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려 했다는 점이다. 통합 사이트의 매력은 간결함과 편리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각 기관의 개성을 잃고, 단일화 되는 우려도 뒤따른다. 텍스트와 영상의 범위가 무너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구분짓지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

한 이야기 없이 동국인의 신설에 긍정적 반응만을 보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

꼭꼭골면에서는 연계성 있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신입생일 때 첫 수강신청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디엔'을 보니 반갑고, 운영자들의 고충을 읽으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의 현안에 대해 알권리를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와 달리 학업적인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나와 우리 주변의 모습이다. 대학교는 오로지 학점을 따기 위해 다니는 학교는 아닐 것이다.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이란 말을 되새기게 되는 좋은 기사였다.

나는 동대신문에서 회전무대 코너를 좋아한다. 비판적인 내용이면서 언어적 유희로 웃음까지 만들고, 동감하게 되는 글들이 많다.

지난호에서는 '긴가민가'라는 글이 끌었다. 여기가 안인지 밖인지, 비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 없는지, 나도 물어보고 싶은 말이어서 읽으며 속이 시원해졌다.

신문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타고 학생들의 생각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구성구석을 누비며 나와 다른 학생들의 눈을 대신할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김미나(사과대1)

### 독자 사진첩



#### 동그라미 세상 ...

동그란 구멍을 통해  
동근 세상을 본다.  
모가 난 현실과는 다른 ...

김태호(공과대 전기공4)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일시 논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으로 본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준비 연중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논술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나만의 생각 ●유의 사항

편집자

### 3.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NIE

## 신문, 살아있는 논술 교과서

-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 논술 시험 대비 방법으로써 'NIE'의 가치

우리말로 '신문 활용 교육'이라 불리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논술 시험 대비 방법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것은 논술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과 'NIE'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능력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논술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각 대학별 특징에 따라 다소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 문제와 논술에서 제시된 지문을 객관적·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둘째,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과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NIE'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활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독해 및 쓰기 능력, 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료의 분석·종합

활용 능력 등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NIE'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기에 'NIE'가 논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서 경험의 부족, 열악한 토론 및 토의 문화, 창의성 부족, 읽기 및 쓰기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등학생의 상황 또한 'NIE'의 가치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된다.

### 'NIE'를 통한 논술 시험 대비 방법

'NIE'를 통한 논술 시험 대비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통해 필자가 나름대로 정립한 방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력 확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라.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사고하고, 읽고 또 쓰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시험을 치르기에 부족한 어휘력을 가진 학생이 많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교과서'로써 어휘력을 키우는 도구로 신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약하기 자료로 활용하라. 앞서 밝혔듯이 논술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료

를 객관적·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요약하기'다. 요약이란 어떤 글의 핵심을 함의적으로 간추리는 일련의 과정이다. 상술하면 어떤 글의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고,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고, 타당한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려내는 등의 가치판단을 거치는 복합적 사고 과정이다. 이런 요약하기 과정은 글을 객관적·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자료로 활용하라. 특히 논제 분석은 논술의 점수를 좌우하는 관건임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이때 칼럼이나 사설은 좋은 자료가 된다. 과연 한 편의 글에서 말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술 시험의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 종류가 다른 신문에서 공통된 현상이나 사건을 다룬 기사를 찾아 다양한 사람들의 해결책을 파악해 본다. 이때 뜻이 맞는 친구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 효과는 증대된다. 또 신문의 각 구성 영역에 따라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해결책을 모색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다.

김명엽  
헤원여자고등학교  
논술담당 교사

	동국관	상록원	원 향	
금주의 식단	월 (10/8)	부대찌개 (2000) 쇠고기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갈비경단 (1800) 감자탕 (2500) 열무비빔밥 (2000)	생이채볶고기비빔밥 (2900) 순대이채볶음덮밥 (2500) 쇠고기두부전골 (2900)
	화 (10/9)	산채비빔밥 (2000) 치킨카레라이스 (2000) 치즈돈가스 (2500)	두부김치 (1800) 떡배기볶고기 (2500) 날치알회덮밥 (2000)	원향정식 (2900) 오징어떡볶음 (2500) 단호박영양밥 (2500)
	수 (10/10)	장터국밥 (2000) 김치볶음밥 (2000) 새우가스 (2500)	사골우거죽국 (1800) 버섯육개장 (2500) 치킨카레볶음밥 (2000)	김치알밥 (2900) 손만두국 (2500) 청국장찌개 (2500)
	목 (10/11)	설렁탕 (2000) 오징어탕수 (2000) 수제돈가스 (3000)	갈치구이 (2000) 쇠고기국밥 (2500) 제육덮밥 (2200)	치킨가스정식 (2900) 전주식비빔밥 (2500) 찰판제육두루치기 (2900)
	금 (10/12)	계란말이백반 (2000) 해물덮밥 (2000) 고구마돈가스 (2500)	잡채 (1800) 알탕 (2500) 참치김치덮밥 (2000)	치즈부대찌개 (2900) 양송이볶음밥 (2500) 찰판달걀비 (290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한 개혁·개방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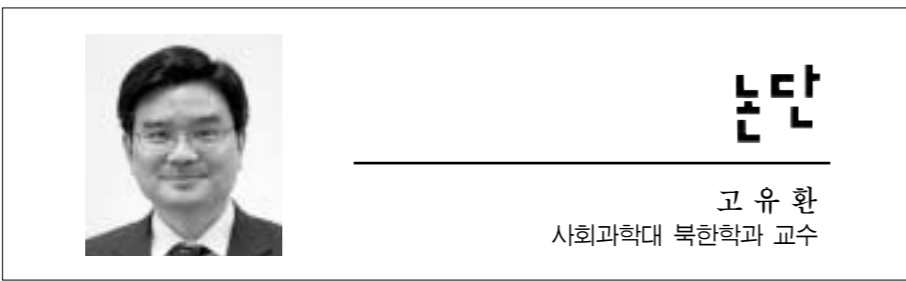
## 10·4 선언과 종전선언의 의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0·4 선언’에서는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측이 준비한 의제를 거의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시설에 대한 연내 불능화(disablement)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북한의 의도는 2·13합의 이행의 본격화 추세에 맞춰 남북관계를 급진시켜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코 유 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의제의 비중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료선언 용의 표시를 한 데 이어, 9월 7일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철회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북핵폐기를 교환하

는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실험 이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협력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관련 합의를 도출하여 당사자 해결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하는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큰 그림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한국전쟁 종료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부시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징검다리로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료와 함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종전선언에 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리수

## ‘클린 동국’과 ‘自淨’

지난달 동국대 총학생회(제39대)와 동아리연합회(제23대) 주관으로 차량 안전운행과 주차문화개선,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불법광고제거, 학내생활 에티켓 지키기, 소음방지 등 요일별로 다른 주제를 갖고 ‘클린 동국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요즘에는 그간의 동국대 사태로 인해 교수회를 비롯한 중대구성원들이 외치는 ‘자정’과 ‘쇄신’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를 주위 환경은 불교용어로 말하면 의보(依報)이다. 그런데 그 의보는 그 속에 사는 주체자인 정보(正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 정보와 의보는 궁극적으로 돌이 아니다. 동국 구성원 자체의 청정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학업환경은 상호 연관관에 있으며, 그 깨끗하게 하는 행위(業)의 주체는 구성원들의 청정한 마음이다.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로 전해지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맑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계송은 ‘법구경’을 위

시하여 경율론 삼장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스스로 그 뜻을 맑히는 그 마음이 본래는 청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 본래의 청정성을 회복할 때 동국캠퍼스도 청정하게 될 것이며 동국구성원의 학업과 삶도 궁극적으로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참회에는 사참(事懺)과 이참(理懺)이 있다. 이미 지은 깨끗하지 못한 업에 대해서 낱발을 따라 참회하는 것이 사참이고, 깨끗하지 못한 업의 자성조차 공해서 없는 것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이참이다. 즉 본래 맑은 청정, 밝은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참회인 것이다.

동국대는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내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불교를 견학이념으로 한 공동체와 구성원 개개인의 참살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도덕성과 청정성 회복의 클린 동국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 해 주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메아리

### 뜨거워지는 ‘철밥통’

▲ 카이스트가 그동안 ‘철밥통’으로 여겨져 온 교수들의 정년보장에 갈을 들이냈다. 교수들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한 교수 35명 가운데 43%인 15명을 탈락시킨 것이다. 이어 서울대도 이번 학기 교수 승진 심사에서 55명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만약 1, 2년 안에 큰 연구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교수인용이 되면 큰 차질 없이 정년이 보장되던 그동안의 관례를 바꿔놓을 기세다.

▲ 지난달 29일 중앙일보 2007년도 전국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일보의 평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우리학교는 종합 순위 28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순위다. 입학 성적이 비슷한 학교와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결과이다. 2006년 평가 당시 44위에서 27위로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한 단계 주저앉았다.

▲ 우리학교가 20위권 안에 이름을 내

민 부문은 학생당 장학금 규모, 평판 및 사회진출도, 교수 당 외부지원 연구비 정도이다. 특히 교수 연구 부분에서 20위권 안으로 평가 받은 부분은 외부 지원 연구비뿐이었다. 교수당 SCI 논문 게재 수와 SCI 논문 피 인용 건수는 30위권 후반에 머물러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구비와 장학금, 졸업생에 대한 평판이 나쁘지 않음에도 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 것은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 ‘철밥통’. 흔히 공무원들이나 정년이 보장되어 개혁에 소극적인 집단을 일컫는데 쓰이는 말이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이 선두에 선 대학들이 공고하게 만들어진 이 밥통을 깨고 있다. 그들의 뒤에선 대학들에게는 충격이다. 우리학교는 어떠한가. 다른 대학들이 철밥통을 깨는 사이에 오히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철밥통을 뜨겁게 가열시키고 있지 않은가.

물론 무한 경쟁만이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교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교수들은 ‘성과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달리는 못할 망정 달리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던 안 될 일이다.

문서영 기자

### 사설

## 유마거사의 정신으로

## 강력한 자정과 개혁을 실천하자

검찰이 우리 학교에 대한 전면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신정아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가 정권 차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지원을 받았는지 조사의 핵심이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고소인으로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사실 확인에 필요한 모든 요청자료를 제공하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고인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각종 국고 지원 사업에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떠난 과잉수사, 공권력 남용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 대학은 정부의 대학혁신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내부의 반발과 갈등을 감내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면서 구조 개혁과 대학특성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행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매우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사문서 위조를 통한 업무방해사건이었다. 우리 대학은 자체진상조사를 거쳐 학위위조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사자를 파면시키고 검찰에 고소를 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그 이후부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들은 정권 감시 기능을 심본 발휘하여 무차별적인 보도경쟁에 박차를 가했다. 사건을 둘러싼 스캔들의 선정성이 가미된 권력형 비리라는 주류담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비록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대검 중앙수사부까지 총동원된 검찰수사라도 권력형 비리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언론은 변 전 실장이 독실한 불자라는 이유로 인해 근래에 문화재 보수 사유 등으로 정당하게 국고 지원을 받은 오대산 월정사 등 여러 사찰을 또 다른 특혜의혹의 대상으로 보도하여 마치 불교계 전체가 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보수 언론과 아당의 합작에 의한 불교 탄압이라는 담론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기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는지라 여러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종을 내고 정권 핵심부를 겨냥했던 언론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검찰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불교계를 달래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주류담론을 형성한 기획 커넥션을 주목하고 있다.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지는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하여 언론과 야합한 의혹이 여러 정황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가 당한 무차별 압수수색도 결국 ‘권력형 비리’ 시나리오에 따른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획에 우리 학교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태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기획 커넥션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오늘 우리의 일차적인 책무다. 학교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미 이사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책임지는 자세와 쇄신의 기상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의 뜨거운 눈총도 많이 받았다. 돌도 많이 맞았다. 특히 학생들과 동문들이 겪는 고통과 격분에 대해서 학교는 더 이상 침묵으로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이 부질없다는 것을 부처님께 배워 잘 알고 있다. 유마거사는 증성이 아프면 내 한 몸이 아프다 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치욕과 고통을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대신 겪음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밝히는 유마의 정신으로 크게 생각하자. 단 여기에는 강력한 자정의지와 개혁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가 새롭게 거듭나고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운재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발전기금 060-700-0119**

## 100만원을 잡으세요! 기회는 당신의 것!

**제45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2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 : 10월 22일(월) ~ 11월 9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입상발표 : 2007년 11월 26일차 동대신문(예정)  
☎ 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사**

##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2007년 2학기 집단상담안내

### 인간관계를 통한 자기 향상 집단

#### ‘내안의 내가 행복한 나를 만나고, 내안의 내가 행복한 너를 만나기 위한’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탐색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한 집단 구성원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소개

집단명	프로그램 목적	일시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한 현실 치료 집단	인간관계의 향상과 자기정체성을 찾아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돕는다.	매 주, 목요일 3~5시

▶ 리더 : 전나미(상담심리사)  
▶ 기간 및 횟수 : 10월 18일 ~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3-5시 (집단·8회기 진행)  
▶ 접수 문의 및 장소 : 10월 15일 · 화요일까지 선착순 12명 접수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 (구내전화 2260 - 3931)  
▶ 집단 상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각 집단에 대한 수료증 발급.

2007년 2학기 심리극 집단 상담 안내

때로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젊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에 서툰고 두렵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날기를 원한다면 오십시오. 세상을 향해 내가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는 당신을 함께 있고 함께 하기에 더 아름다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 飛行을 시작하며...

‘내안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가을 날, 우리는 비상을 꿈꾼다.

▶ 집단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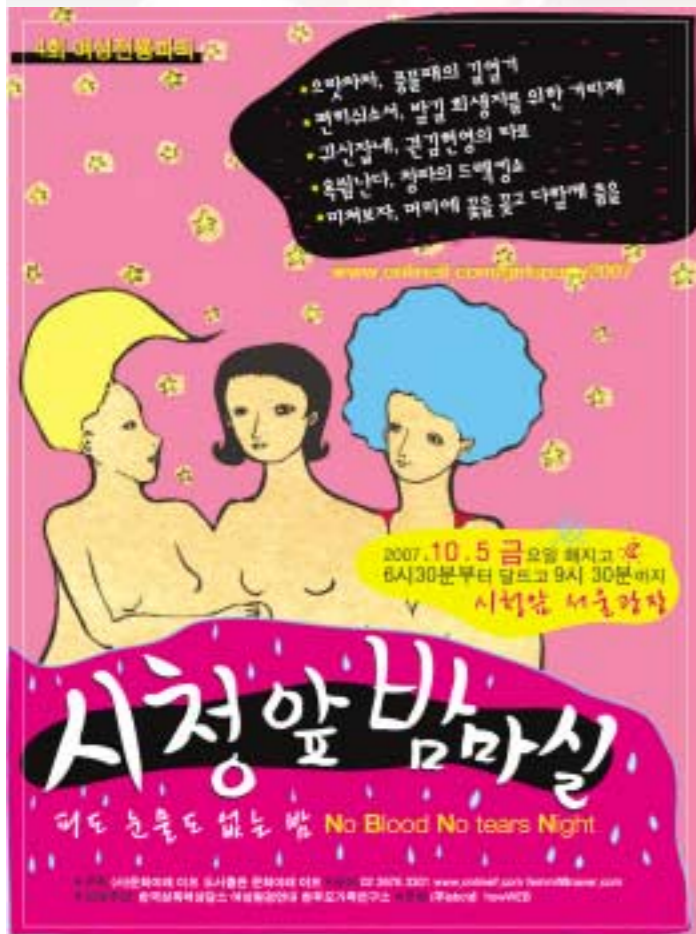
집단명	프로그램 목적	일시
‘飛行을 시작하며’ 심리극 집단	자기 탐색을 통한 나,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위한 내적 성숙 및 변화를 돕는다	매 주, 수요일 2~5시

▶ 리더 : 최대현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TEP, 서강대 평생교육원 사회 복지 아카데미 교수)  
▶ 기간 및 횟수 : 10월 17일 ~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2-5시 (집단·8회기 진행)  
▶ 접수 문의 및 장소 : 10월 15일 · 화요일까지 선착순 12명 접수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 (구내전화 2260 - 3931)  
▶ 집단 상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각 집단에 대한 수료증 발급.



# 아름다운 달밤을 되찾기 위한 그녀들의 파티

## “안전한 밤길 문화 만들자”는 취지로 개최 여성콜택시제도 등 실효성 돋보여



### 여성전용 콜택시 제도는 무엇인가 '여성전용 콜택시' 제도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권희정 (문화미래 이프 사무국장)

행법에 규정된 범죄는 절도죄, 주거침입죄, 추행죄, 살해죄 등이 있다. 이 중 추행이나 살해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범죄인데 성범죄인 범죄이다. 왜냐 하면 사람의 신체는 여성이 되는 경우 강간 추행이나 성폭행 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몸은 물건이나 주거지 등과 같이 사물화되어 범죄가 저질러지는 대상이자 공간이 된다. 자본주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겪어야 하는 수난은 여성의 성이 매매와 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 택시운전사로 가장한 남자들이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 후 살해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보통 남성들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마실을 다닌 후 귀가하다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여자가 밤늦게 싸들어나다니...”. 여성지위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와 상관없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신체의 자유는 한정적이다. 특히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지하철에서, 택시 안에서 여성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절망적일 만큼 없다.

최근 서울시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콜'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이 콜택시 서비스 신청 시 여성운전자를 요청하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해 가장 가까운 여성운전자 차량을 배치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애초 9월 시행이 10월 말로 연기되었다. 제도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문화미래 이프는 2006 여성전용 파티, '피도 눈물도 없는 밤'을 통해 '여성전용 콜'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그리고 2007년 여성전용 파티에서도... 우리는 내년에도 또 같은 구조를 외치게 될까... 그러면 그 사이 유명을 달리하는 여성은 또 얼마나 될까. 여성의 몸은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성전용 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여자들이 대체 그 시간까지 뭐하고 다닌 거야?”  
“웃자람이 단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지난 8일 홍대 근처에서 발생한 택시 살인사건 등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기사 밑에 댓글로 달리는 네티즌들의 뜬금없는 반응들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달밤에서의 성폭력, 강간, 살해 등을 여성 책임으로 몰아 부치는 세상의 반응에 그들의 핑크빛 반란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시청 앞 밤 마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전용 파티는 여성들이 늦은 밤 많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요즘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2007년도 파티는, 2006년 여성전용 콜택시제도를 촉구한 결과로 그것이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회와는 다르게 여성만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른 밤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 ▲ 마실 길 가기 전 - 꽃 달고 분홍 옷 입고

분홍과 꽃은 평화와 여성을 상징한다. 밤 마실을 온 분들은 분홍이 들어 있는 옷을 입거나 소품을 지참하고 또는 머리에 꽃을 꽂고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하도록 한다.

#### ▲ 마실길 퍼레이드

문화미래 이프가 지난해 여성전용파티를 통해 여성전용콜택시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서울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콜택시 제

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티에서는 이를 자축하고,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여성전용콜택시 퍼레이드 및 전시가 이뤄졌다.

무대 미술팀이 안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천과 꽃으로 택시를 아름답게 꾸며주며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은 전시된 택시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택시에 직접 타보기도 했다. 조한진(이화여대4) 양은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거부감이 드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또한 운전경력 30년의 여성운전기사 세 분이 분홍으로 꾸며진 여성전용콜택시를 직접 운전하며 광화문과 종로, 시청 인근에서 퍼레이드를 펼쳤다. 택시에는 마녀 복장을 한 가디스가 함께 탑승해 '여성전용콜택시'의 도입 현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여성콜택시 운전자 박승희는 “여성전용콜택시 도입이 여성의 밤길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마실길 동심 놀이길

양상한 나뭇가지로만 되어있던 조형물 치유 나무는 관객들의 다양한 메시지로 꽃을 피워나가기 시작했다.

광장 마실에 온 참가자들은 치유나무에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편지, 자신의 소망 등 자신들의 이야기로 양상한 나무에 꽃을 피웠다.

“저 밤길에도 마음 놓고 놀고 싶어요”, “남자도 가끔은 밤 길 이 무섭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캠페인은 없나요?” 등 다양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무대미술팀이 여성전용콜택시를 꾸미는 모습.

#### ▲ 마실길 무대극경험하기

밤길에 폭행과 살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녀를 기리는 거리제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풍물패의 굿과 함께 밤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평화로운 세상 기원을 하늘에 올랐다.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르케스트라, 여성 락밴드 페리제인 등 다양한 팀이 공연의 흥을 돋구었다. 장애여성공감의 연극팀 '춤추는 허리'가 출연해 장애우가 겪는 밤거리의 위험함을 몸으로 표현해 화려한 밤거리의 어두운 이면을 볼 수 있었다. 팝록밴드 고고보이스의 이상태(25)씨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밤길에서 여성들은 힘겹게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청 앞 밤 마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양성이 함께 즐기는 파티였다. 물론했던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자 70, 80년대 운동과 투쟁으로 시작되었던 여성운동은 이제 일상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여성전용파티가 앞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계속 촉구하며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바꾸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글 = 이송이 기자  
사진 = 이정훈 객원기자  
thispaper@dongguk.edu

### 자원봉사자(가디스) 인터뷰

## '시청앞 밤 마실'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Goddess(가디스): 여신 또는 숭배의 대상인 여성 여신이 시청 앞에 대거로 출몰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겠지만 이는 시청 앞 광장 곳곳을 누비며 관객들과 스텝들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를 의미한다. 가디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보는 여신처럼 곳곳에서 관객들의 밤마실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일한다.

'시청 앞 밤 마실'을 다채롭게 꾸민 자원봉사자 '가디스' 배성현(호서대 4) 양과 사재민(아주대 2) 군을 만나봤다.

-여성전용파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성현=우리 집엔 딸만 셋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죠. 통금시간이 8시라 친구들과 맘껏 놀려고 하면 집에 들어와야 해요. 전 이번 파티가 여성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어 흥미가 생겼어요.

재민=평소에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모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 행사도 '파티'라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하게 됐습니다.

여성전용파티라 여자분들만 있으면 어찌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가디스' 합력자 명단에서 남자분이 꽤 있는 것 같아 안심했죠.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명단을 보고 남성이라고 여겼던 분들은 전부 여자였습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남자 봉사자가 저를 포함해 3명이라 놀랐어요. 여자 분이 이렇게 많은 곳에 있는 것은 처음이네요.

-이번 파티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성현=당일 행사관리를 맡고 있어요.  
부스 관리, 다른 '가디스'들의 출입, 행사일정 관리 등을 하고 있어요. 행사 전에는 외부로 보낸 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홍보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재민=오리엔테이션 이후 얼마동안 일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어요. 행사 전에는 사무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 행사 물품정리, 문서 작성 등 행사 전반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재민(아주대 2) 군.



배성현(호서대 4) 양.